
		보 도 자 료		수도권매립지 종료		
		배포일자 2021년 9월 24일(금) 총 2매				
담당부서	대기보전과	담당자	• 산업단지환경팀장 박승일 ☎440-3421 • 담당자 송은희 ☎440-3424			
사진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있음		참고자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있음				
보 도 시 점	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		

인천시, 영세사업장 환경관리 돕는다.

-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관리시스템(GreenLink) 온라인 교육 실시 -

- 개정규정 및 관리시스템 이용법 알기 쉽게 설명 -

인천광역시(시장 박남춘)는 9월 27일 관내 ‘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’ 사업장 546개소를 대상으로 ‘소규모 대기배출시설 관리시스템(GreenLink)’ 이용에 관한 온라인교육(YouTube)을 실시한다고 밝혔다.

개정된 관련규정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시스템 이용의 어려움으로 인해 사업장들이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한 교육이다.

「‘21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」 개정 및 「소규모대기배출시설관리시스템(www.greenlink.or.kr)」 구축에 따라 해당 사업장에서는 2021년부터 관리시스템을 통해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 데이터를 전송해야 한다.

이에 따라 인천시는 4~5종 대기배출사업장의 IoT 부착의무 개정(안)에 대해 설명하고 관리시스템의 등록방법과 이용 및 관리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교육할 예정이다.

유훈수 시 환경국장은 “사물인터넷을 활용한 대기방지시설 유지관리로 시설의 이상 여부, 소모품 교체주기 파악 등 자율적인 관리가 가능해지는 만큼 대기배출시설 설치 사업장이 적극적으로 교육에 참여해 주기 바란다” 라고 말했다.

한편 인천시는 2019년부터 중소기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후 된 대기방지시설 설치비의 90%(국비 50%, 지방비 40%)를 지원하고 설치된 방지시설의 운영 관리를 위해 사물인터넷(IoT, Internet of Things)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고 있다.